

숲속의 아이들

-양반 제주 움직이는 학교



안희 전현주 조상현 최을 김승서봄 박선영 양민혁 오영민 유재훈 이담 이종은 이하은 임조
은 김서준 방연우 양승혁 김동현 최석T 은정T 미리T 철수T

목차

비상연락망

알림사항

생태와 환경

역사

지역문제

순이심촌을 읽고

타 대안학교 분포

모교지 장소

생활규칙

하루나누기

롤링페이퍼

☎비상 연락망

강희석 010-4463-9401

이은정 010-5544-9465

강미리 010-8315-5809

이철수 010-6827-3623

🎵 알림사항

◇참가인원: 양반 17명(안희 전현주 조상현 최은솔 김송새봄 박선영 양민혁 오명민 유재훈 이담 이종은 이하은 임조은 김서준 방연우 양승혁 김동현) +선생님 4명(강희석 강미리 이은정 이철수)

총 21명

◇전체 일정

6월5일 (수) 김포공항, 청주공항 10시 30분 집결

6월 17일(월) ~ 6월 21일(금) 타대안학교 체험

6월 21일(금) ~ 6월 23일(일) 안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마무리 모임

6월 24일(월) ~ 6월 29일(토) 가정학습

6월 30일(일) 입교

제주행 항공편(6월 5일)

(1)김포 : 11:35 출발(이은정 안희 전현주 조상현 최은솔)

(2)청주 : 11:25 출발(강미리 강희석 이철수 김송새봄 박선영 양민혁 오명민 유재훈 이담 이종은 이하은 임조은 김서준 방연우 양승혁)

(3)대구 : 08:30 출발(김동현)

귀가 항공편(6월 14일)

(1)김포 : 12:45 도착

(2)청주 : 12:25 도착

(3)대구 : 12:40 도착

◇준비물: 개인 도시락통, 물병, 수저, 작은 가방, 짐 가방(배낭), 모자, 운동화 또는 등산화, 끈 있는 샌들, 세면도구, 침낭 또는 얇은 이불(1회 사용), 비옷 또는 우산(도보 시 반드시 비옷), 개인 약품, 필기도구, 손수건, 선크림, 교통카드

◇일정표

날짜	시간	일정	이동거리	휴식/숙소
6. 5 (수)	12:30	제주공항 집결		
	13:00	점심		
	16:00	강정마을 도착		평화센터
	17:00	강정천		
	18:00	저녁		평망물(7,000)
	20:00	다큐영상		
6. 6 (목)	07:30	백배기도		해군기지 정문
	08:00	도보시작		해군기지 정문
	08:30	아침		제주밥상
		서귀포 여고 앞 버스정류장		
	12:00	이중섭미술관	10km	이중섭 미술관
	13:10	점심		원준이네(010-4100-5952) (7,000) 서귀포시 태평로 442-6
	15:30	쇠소깍	16.4km	넙빌레 게스트로 가는 길
	17:30	위미2리	20.4km	나그네 쉼터
	19:00	저녁		취사

6. 7 (금)	07:00	아침		취사
	08:00	출발		
	09:10	동백나무 군락지(금호리조트)	4.5km	
	09:50	남원읍사무소	6.4km	화장실 사용
		남원주공아파트 앞 좌회전	6.8km	주공아파트 방면
	10:30	금성동 교차로 신호 건너 휴식	9.2km	
		알뜰주유소	10km	화장실 사용
	11:20	보말가든	12.2km	점심
	13:00	알토산 회센터 앞 큰 도로 방 면 직진	13.8km	
	13:20	농협수련원	15km	화장실 사용
	14:00	삼거리에서 표선해수욕장 방면 우회전	17km	
	14:40	표선해수욕장	19.5km	행복한 교회(숙소)
	18:00	저녁		취사

6. 8 (토)	08:00	출발(신산리까지 4차선 해안도로 직진)		
	09:10	분홍색 게스트하우스, 카페	4.7km	휴식(화장실 없음)
	10:00	신산리사무소	7.3km	이장님과 만남(60분) 주민 이야기 듣기(50분)
	11:50	동원식당(점심식사)		신산리사무소 맞은편
	13:00	신산보건진료소 옆길(환해장성로121번길)로 우회전	7.5km	해안도로로 우회전, 갈래길에서 좌회전
	14:00	갯그시펜션(온평바다한그릇)	11.5km	휴식
	14:45	편의점 지나감	13.5km	화장실
	15:30	바르카페 앞 나무그늘 정자	16.2km	휴식
		달리맨 앞 우회전, 큰도로 합류 직후 좌회전	16.3km	
	16:05	베스트부동산 앞 우회전	17.7km	1132번 지방도(제주, 고성방면)
		로터리에서 성산일출봉 방면 우회전		
	16:15	농협 하나로마트 지나감	18.5km	농협 화장실 사용
	16:50	성산일출봉 펜션	20.5km	숙소

6. 9 (일)	08:00	성산일출봉 관람		1:30 소요
	10:00	출발		일출봉 뒤편 보리밭에서 우회전
	10:03	파출소 앞 좌회전 후 콧시티 호텔 지나감		
	10:15	로터리어서 좌회전(갑문다리 방면)	1km	
	10:25	gs편의점 앞 시흥 해안도로 방면 우회전	1.6km	
	11:00	휴식	4km	주황지붕 빌라(3채) 앞 정자
	11:50	우도 도항선 대합실 지남	6.6km	화장실 사용
	12:20	종달리 불턱 지남	8.5km	간이 휴식 장소
		불턱 직후 삼거리에서 우회전 (다리 건넌)		
	12:35	하도해수욕장(~15:00 점심)	9.7km	도시락, 화장실
	16:00	모진다리 불턱(휴식)	13.7km	화장실 없음
	16:15	해녀박물관길로 좌회전	14.9km	해녀박물관 화장실 이용
		올레21민박 앞 삼거리 우회전		
		구좌의원 지나 농협에서 우회전		
		세화초등학교 앞 gs25방면 좌회전(다모아 물류센터)		
	사거리 신호등에서 직진(오명가명 휴게마트 방면)			
	17:00	숙소 도착	17.6km	노노레타 펜션 (고기 준비해 갈 것)
6.10 (월)	08:00	모듬활동 시작		1인 20,000원 지급
	18:00	저녁 식사		
	19:30	모듬활동 발표(약식)		노노레타 펜션

6.11 (화)	09:00	비자림 탐방		비 예보 시, 10일 일정과 바꿈
	11:00	대천~송당 간 비자림로 공사현장 방문	도시락, 또는 숙소 이동 취사	거슨세미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민오름 정류장 앞 펼침막 게시, 기타활동
	15:00	비자림로 파괴와 생태복원 사업	고은영	노노레타 펜션
	19:00	하루평가를 해볼까?		노노레타 펜션
6.12 (수)	09:00	햇핑크 돌핀스 방문	차량 2대	애월
	14:00	자유시간		점심식사-매식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교사준비
	19:30	영화상영(지슬)		노노레타 펜션
6.13 (목)	09:00	4.3 평화기념관	차량2대	도시락
	14:00	동백동산, 목시물굴		
	17:00	숙소 도착		
	19:00	4.3 주제 글쓰기		절물자연휴양림
6.14 (금)	08:30	공항 이동(공항에서 김밥)		버스, 또는 렌터카로 이동

◇식단표

날짜	요일	아침	점심	저녁	숙소
6/5	수		김밥	평망물 식당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6/6	목	제주밥상 식당	분식집	나그네쉼터 식당	나그네쉼터
6/7	금	김밥	보말가든 식당	독수리연합조 햄전,미역국	행복한 교회
6/8	토	뽕짜조 간장계란밥	동원식당	킹갓잔나비 돼지김치찌	성산일출봉 펜션
6/9	일	뽕짜조 김치볶음밥	뽕짜조(도시락) 김치볶음밥 김밥	고기파티	노노레타
6/10	월	독수리연합조 시리얼	모듬 활동	교사 취사	노노레타
6/11	화	킹갓잔나비 반찬+밥	킹갓잔나비(도시락) 옛날컵밥도시락	뽕짜조 부대찌개	노노레타
6/12	수	킹갓잔나비 샌드위치	매식	교사조 반찬털기	노노레타
6/13	목	독수리연합 간장계란밥	독수리연합(도시락) 김치볶음밥	뽕짜조 매운 쏘야	절물자연휴양림
6/14	금	김밥			

◎제주의 생태와 환경



〈문섬과 범섬, 섣섬 위치〉

◇문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남쪽 1.3km 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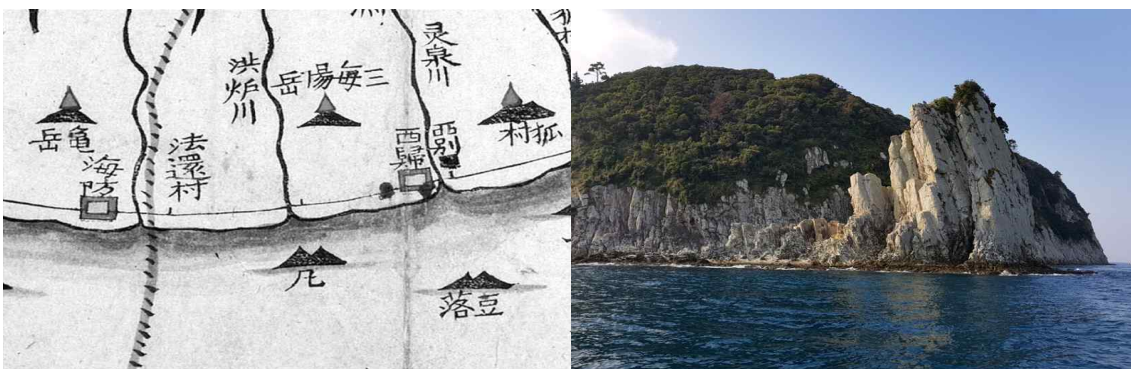
지형 및 특징: 서귀포시 삼매봉 아래의 외돌개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떠 있는 섬이 문섬이다. 해발 73m, 면적 96.833㎡의 무인도이다. 문섬 수중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어 사시사철 아열대성 어류들이 서식하며 63종의 각종 희귀 산호들이 자라고 있어 국내 최고의 수중생태계의 보고이다. 섬 안에는 담팔수나무 거목 등의 난대상록수가 울창하여, 제주도 지정 문화재기념물 제 45호로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쪽 바다에는 새끼섬인 의탈섬이 자리잡고 있다.

유래: 문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연도 어느 섬 못지 않게 흥미롭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사냥꾼이 한라산에서 사냥하다가 그만 활집으로 옥황상제의 배를 건드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크게 노한 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졌는데 그 조각이 흩어져서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과 범섬이 되었고 뽑힌 자리는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북쪽 바다에는 새끼섬인 의탈섬이 자리잡고 있다.

대동여지도에서 본 문섬

문섬

◇섣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보목동 남쪽 450m 해상)

지형 및 특징: 서귀포시에서 남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무인도이다. 각종 상록수와 180여 종의 희귀 식물, 450종의 난대식물이 기암 괴석과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섬의 면적은 142.612㎡이며 가장 높은 곳의 해발고도는 155m에 이른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벼랑으로 둘러싸인 섬섬은 질 푸른 난대림으로 덮여 있어, 서귀포시의 해안풍치를 돋구어준다. 그래서 해상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국내 유일의 파초일엽(일명 넓고사리) 자생지로서, 천연기념물 제18호인 섬섬은 식물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돌돔, 병에돔(흑돔), 참돔, 다금바리, 감성돔 등이 풍부한 천혜의 낚시터이다. 이중 감성돔은 6월 초순경부터 7월까지 많이 잡히며, 가을철에는 참돔이 잘 잡히는 밤낚시터로 유명하다.

파초일엽 - 주로 일본과 타이완에 분포하는 아열대식물로 꼬리고사리과에 속한다. 또한 상록다년생 초본으로 단엽 형태의 잎이 방사형으로 뻗쳐 나가는데, 다 자라면 길이가 1m에 이른다. 섬섬은 파초일엽이 자생하는 가장 북쪽지역이어서 학술적인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그래서 196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1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 멀리서 바라본 섬섬



← 파초일엽

◇범섬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동 남쪽 1.3km 해상)

지형 및 특징: 서귀포시 법환동의 삼매봉 아래에 있는 외돌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건너다 보이는 무인도이다. 서귀포에서 뱃길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스킨스쿠버의 포인트인 범섬은 바다 속 풍경 또한 아름답다고 하네요.

길이는 남북이 0.58km, 동서가 0.48km이며, 해발고도는 87m, 면적은 93,579㎡이다. 범섬은 조면암질의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가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섬 주위에는 크고 작은 해식동굴들이 있다. 또한, 섬 위쪽은 평평하며 남쪽 가장자리에서는 용천수가 솟는다. 동북쪽 절벽에는 콧구멍처럼 생긴 바위도 있다.

과거: 또 범섬은 큰섬과 새끼섬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멀리서 보면 큰 호랑이가 웅크려 앉은 형상같아서 범섬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역사적으로는 고려를 지배했던 원나라의 마지막 세력인 목호들이 난을 일으키자 최영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제주에 온 후, 그들의 마지막 본거지로 삼았던 이 섬을 완전 포위해 섬멸시킴으로써 몽고지배 10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곳이기도 하다.

섬에 사는 친구들: 50~60년전만 하더라도 이 섬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가축을 방목하고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도 섬의 정상부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흔적과 "애기물"이 있어 역사가 무성하다. 섬 남쪽에는 강한 해풍으로 인해 나무가 없으며, 북쪽에는 돈나무, 구실잣밤나무, 해송 등이 울창하게 상록수림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는 난대성식물인 "박달목서"라는 희귀종 1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섬은 제주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제46호 "범섬 상록활엽수림 및 흑비둘기(천연기념물 제215호) 번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섬 주변에는 기복이 심한 암초가 깔려 있어 참돔, 돌돔, 감성돔, 병에돔(흑돔), 자바리 등이 많다. 6월부터 7월까지의 감성돔, 병에돔, 참돔이 잘 잡히고 겨울철에는 자바리, 참돔, 돌돔 등이 많이 잡힌다. 범섬을 가려면 서귀포항에서 유어선을 이용하거나 법환포구와 강정포구에서 낚싯배를 타면 된다.



천연기념물 흑비둘기는 '웃우우 웃우우' 또는 '모오우 모오우' 구루구루우 구루구루우' 하는 소리를 낸다고 해요!

◇목시물굴

위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26번지

문화재 지정: 비지정 문화재

지형 및 특징: 목시물굴은 제주 천연 동굴로 1동굴의 길이는 약 100m 정도 된다. 목시물굴은 입구가 두 개인데 한쪽 입구는 한 사람이 누워서 들어갈 정도로 좁고 다른 한쪽은 비교적 크다.

한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
좁은 목시물굴 입구



← 입구가 비교적 넓은
목시물굴 입구

동굴 내부에는 용암선반, 승상용암, 아아용암, 용암주석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용암종유, 동굴산호, 용암곡석 등도 관찰되고 있는 곳이다. 안에는 넓은 공간도 있으나 용암이 흐르다 굳어버린 암석이 바닥은 형성해 울퉁불퉁하고 낮은 형상으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기는 부적절한 구조이다.

또 4.3사건 때 소개령을 피해 피신했던 흔적과 유품들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지금은 선흘리 주민분의 벌꿀농장에 있으며 목시물굴 주변에는 '트'(주:아지트의 줄임말. 4.3당시 무장대나 피난주민들이 움막을 지어 생활하던 곳)의 흔적이 산재해 있다. 목시물굴은 4.3 유적지로 굴속체험도 잦은 편이다.

목시물굴에서 나온 4.3당시 제주
주민들이 사용하던 생필품이다.
대부분이 식기이며 무기는 하나도 없다.



목시물굴 근처에 있는 움막터이다.
동굴 안에서 불 피는 것은 위험해서
낮에는 굴속에 숨어있다가 밤에 나와
요리를 했다고 한다.



과거: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주민 200여 명이 목시물굴에 피신했다. 당시 목시물굴에 피신했던 4주민들은 나무뿌리에 있는 물이나 돌 구멍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낮에는 토벌대를 피해 숨어있다가 밤에 몰래 나와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1/2또 목시물굴에 숨었던 조명옥 씨는 “채 돌도 안 지난 여자아이는 자꾸 우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들킬 것을 염려한 아이 아버지가 입을 틀어막았는데 숨이 막혀 죽어버렸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25일 목시물굴 근처 도톨굴이 발각되면서 밤새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한 한두 사람이 목시물굴의 존재를 말해 다음날인 11월 26일 아침, 막격포를 쏘며 목시물굴에 도착한 토벌대는 수류탄을 던져 사람들을 나오게 한 다음 굴 밖으로 나온 어린아이와 노인 등 주민 40여 명을 그 자리에서 집단 학살하고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 유기했다고 한다.

◇김녕굴

지형 및 특징: 김녕굴은 만장굴 밑에 있으며, 총길이 705m로, 동굴 바닥에는 용암이 흘러내린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고 동굴 끝에는 폭포 모양으로 굳은 용암을 볼 수 있다. 또한 천장 높이와 동굴 통로가 매우 넓은 대형동굴이다. 2층의 공동 위 부분에 있는 용암 선반은 갖가지 형태로 발달하여 있으며 벽면에는 규산화가 많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김녕굴 안에는 누군가가 생활 했던 흔적으로 사다리나 터가 있다. 하지만 누가 살았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김녕굴에 사는 친구: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2월 붉은박쥐가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에 이어 김녕굴에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확인된 것은 1마리지만 붉은박쥐는 천연기념물(45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등급,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 관심대상이어 김녕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녕굴은 겨울철에도 10도 내외의 온도와 95% 이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 붉은박쥐를 비롯해 관박쥐, 긴날개박쥐 등이 동면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녕굴 옛이야기: 김녕굴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옛날에 김녕굴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뱀이 살았다고 해요. 그 뱀은 요기를 부려 흥한 이변을 일으켜 뱀을 달래기 위해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며 술, 음식 그리고 15살 소녀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련이라는 사람이 제주판관으로 부임되었어요. 서련은 요사스러운 뱀 이야기를 듣고 요물을 없애기위해힘센 군병을 칼창으로 무장시키고 매 해마다 하던것처럼 제사를 지내 술과 음식을 바치고 소녀를 굴입구를 들여 보냈습니다. 그러자 굴 안에서 큰 뱀이 나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때 서련과 병사들이 뱀을 찔러 죽이고 불에태웠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는데 서련 뒤에 붉은 요귀가 구름을 타고 뒤따랐다

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10일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동백동산

위치:동백동산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 및 특징:198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백동산은 선흘곶자왈에 포함되며 여기서 곶자왈이라는 말은 제주말로 돌과 나무가 얽히고 설킨 모습이라고 한다. 곶자왈인 만큼 동백동산에는 정말 다양한 난대성 수종(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의 식물들이 많다고 한다. 동백동산의 가치 또한 매우 높는데 사계절 푸른 활엽수가 자라는 천연림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고, 제주도 중산간 지역이 파괴되기 이전의 원 식생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보호되고 있기도 하다. 라는 이유로 유명하고 여러 부분으로 가치가 높다고 하다. 또 동백동산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역사: 동백동산에는 도톨굴이 있는데 이 도톨굴은 1948년 11월 21일 많은 사람들이 토벌대를 피해 피신한 곳이며 토벌대가 마을에 남아있던 한 할아버지를 붙잡고 살해위협을 해 도톨굴의 위치를 찾아냈고 4일 뒤인 11월 25일 도톨굴을 찾아 그 자리에서 제주 주민 18여 명을 학살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6일 근처에 있는 목시물굴이 도톨굴에 숨어있다가 잡혀 고문을 당한 주민에 의해 발각되었던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쇠소깍

위치: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지형 및 특성: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다. 쇠소깍은 서귀포시 하효동과 남원읍 하례리 사이를 흐르는 효돈천하구를 가리킨다. 제주 현무암 지하를 흐르는 물이 분출하여 바닷물과 만나 깊은 웅덩이를 형성한 곳이다.

쇠소깍이라는 이름은 제주도 방언이다. 쇠는 효돈마을을 뜻하며, 소는 연못, 깍은 접미사로서 끝을 의미한다.

쇠소깍 전설: 신분차이로 만나지 못하는 썸남 썸녀가 슬퍼하다, 썸남이 쇠소깍에서 자살함. 썸녀가 시신이라도 찾으려 100일간 기도를 드렸는데 찾게 되어 썸남이 울다가 썸녀도 자살함. 이후 주민들이 죽은 썸남썸녀를 위로하기 위해 당을 마련해 영혼을 모시고 있다.

쇠소깍에는 투명카약이 있다. 도보하며 말을 잘 듣는다면 희석샘이 투명카약을 태워준다 했다. 단

회석이와 함께



◇제주 꽃자왈

지형 및 특성: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독특한 숲 또는 지형을 일컫는다. 꽃자왈은 나무·덩굴식물·암석 등이 뒤섞여 수풀처럼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일컫는 제주도방언이다. 형성된 용암에 따라 크게 4지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한경-안덕 꽃자왈 지대, 애월 꽃자왈지대, 조천-함덕 꽃자왈지대, 구좌-성산 꽃자왈지대이다.

꽃자왈 관련 활동들: 꽃자왈 보존 활동 추진

제주꽃자왈도립공원(신평리장 신승범)은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시작한 꽃자왈 보존활동의 하나인 모니터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꽃자왈도립공원 모니터링 사업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17명의 제주시민, 인근 국제학교(SJA)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환경지킴이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3월 27일 '꽃자왈의 식생'이라는 주제로 생태특강을 갖고, 시민모임 2팀, 청소년팀, 기업팀 총 4팀으로 나누어, 11월까지 정기적으로 꽃자왈 식생조사 등 보존 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각 팀은 매월 1회 꽃자왈도립공원 내 탐방로를 나누어 책임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민모임팀의 첫 번째 식생조사 활동으로 본격적인 모니터링이 시작됐고, 다른 3팀의 모니터링도 4월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모니터링은 도립공원 숲해설사들의 안내로 이루어졌으며, 각 팀은 주요 식생을 조사하고 사진에 담아 보고서로 제출하게 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팀(온새미로)의 경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 제작, 공원 내 낡은 게시판 보수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꽃자왈 보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꽃자왈도립공원 관계자는 "꽃자왈 모니터링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 지역의 식생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며, 시민, 청소년,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꽃자왈 보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성산일출봉

위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지형 및 특성: 높이 180m의 성산일출봉은 약 5천 년 전 얇은 바다에서 일어난 수성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응회구이다. 지하에서 올라온 뜨거운 마그마와 물이 만나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분출된 화산

재가 쌓여 일출봉이 형성되었다. 바닷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드러난 지층을 통해 화산폭발 당시 형성된 퇴적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일출봉 분화구와 주변 1 km 해역이 2000년 7월 18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7년 성산 일출봉 응회구의 1.688km²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성산일출봉 절벽에서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가파른 경사의 퇴적층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한 사면은 흙이나 돌이 아래로 흘러내려 무너져버리는데, 성산일출봉의 경우, 화산폭발 당시 화산재가 물기를 머금은 상태였기 때문에 퇴적층이 흘러내리지 않고 급한 경사를 이루면서 쌓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산일출봉은 수성화산 분출 당시 화산체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면서 화산재가 쌓인 퇴적 구조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형성 초기에 육지와 떨어져 있었던 성산일출봉은 파도에 의해 침식된 퇴적물들이 해안으로 밀려들어와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지형을 육계사주(陸繫沙洲)라고 한다.

거대한 성의 모습을 닮아 성산(城山)이라 부르던 이곳은 해 뜨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더해져 지금은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해 뜨는 장면은 영주십경 중 첫 번째로 꼽히며, 12월 31일에 열리는 성산일출제에는 새해의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중섭 거리

이중섭 거리: 4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화가 이중섭을 기리기 위해 피난당시 거주했던 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이다. 1996년에 사업체가 창단하고 1997년 9월 복원되었다. 주변에는 이중섭의 삽화가 들어간 기념품이나 각종 수공예품, 편집샵 등이 즐비해 있으며, 서귀포에 머물며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의 삶의 자취를 더듬어보는 작가의 산책길도 조성되어 있다.

이중섭: 이중섭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의 서양화가로 호는 대향, 본관은 장수이다. 이중섭의 작품에는 소.닭.어린이.가족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향토적 요소와 동화적이고 자전적인 요소가 주로 담겼다는 것이 소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평안남도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에서 출생해 아버지가 작고하셔서 가족 모두 평원에서 팔양으로 거처를 옮겨 여기서 성장했다. 1936년 일본 도쿄 데이코쿠 미술 학교(현재의 무사시노 미술대학)에 입학했지만 1937년 자유롭고 혁신적인 분위기의 학풍을 중시하는 도쿄 분카 학원(문화학원)으로 옮겨 졸업하였다. 1941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조선인 화가인 이쾌대, 진환, 최재덕 등과 함께 조선신미술가협회(朝鮮新美術家協會)를 결성했고, 1943년에는 자유미술가협회 특별상 태양상을 수상했다.

이중섭 미술관: 불운한 시대의 천재화가로 일컬어지는 대향 이중섭 화백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의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이 고장 인심을 소재로 하여 '서귀포의 환상' 등 많은 작품을 남

겼으며, 약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그의 서귀포 체류는 그 후 대항 이중섭 예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중섭의 그림들



<황소>, <선착장을 내려다 본 풍경>

◇ 제주도 화산과 화산지형에 대하여

한라산

제주도의 화산 중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4,000여 종의 식물 가운데 2,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 '살아있는 생태 공원'으로 불립니다. 특히 정상부의 구상나무 숲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뛰어난 경관과 지질학, 생물학적 가치로 인해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한라산은 해발고도 1,950m의 산입니다. 한라산의 한(漢)은 '은하수'를 뜻하고, 나(擎)는 '붙잡다'라는 의미로 은하수를 잡을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한라산은 현재 휴화산 상태입니다. 제3기~제4기까지 화산 활동을 했습니다. 한라산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쪽은 경사가 심한 반면 북쪽은 완만하고, 동서쪽은 비교적 높으면서도 평탄합니다.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한라산 정상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라산 정상부는 종을 엮어 놓은 듯 경사가 급한 모양이라서 종상화산이라 구분합니다. 한라산 정상에 가면 큰 호수가 있는데 '신선이 흰 사슴을 타고 내려와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록담(白-흰백, 鹿-사슴록, 潭-연못 담)입니다. 주위에는 360개의 측화산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화산 분출하면 높은 화산의 분화구에서 붉은 용암이 흘러나오고 뜨거운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바다 속에서도 화산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였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물과 섞일 때 일어나는 폭발로 용암이 고운 화산재로 부서져 분화구 둘레에 원뿔형으로 쌓여 있습니다. 본래 바다 위에 떠 있는 화산섬이었는데, 1만 년 전 신양리 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동·남·북쪽 외벽은 깎아내린 것 같이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정상에는 거대한 접시 모양의 분화구가 있으며, 분화구 둘레에 고만고만한 99개의 봉우리가 빙 둘러 서 있어 마치 성벽처럼 보입니다. 본래 성산은 숲이 무성하고 울창하여 청산(淸山)이라 불렀는데, 바닷가에 세운 성채 같은 모습 때문에 성산(城山)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상절리

제주도의 화산지형 중 특이한 지형에는 주상절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주상절리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면서 식게 되는데 식는 과정에서 땅에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절리에는 쪼개지는 방향에 따라서 판상절리와 주상절리가 있는데,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합니다.



제주의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 443호입니다.

의 퇴진과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당초 국방부는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지으려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강정마을과 위미리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2007년 8월 20일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진행된 해군기지 유치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725명 가운데 찬성 36표, 반대 680표, 무효 9표로 94%에 이르는 주민이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13일 제주 시민단체들, 해군기지 반대 릴레이 단식농성

김태환 제주지사는 2007년 5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에 따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했고 시민단체는 김 지사의 퇴진과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009년8월31일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부결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해군기지 문제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했으나 11%의 투표율로 무산됐다.

2010년7월15일 헛갈리는 제주 해군기지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국방부 변경승인 계획은 위법하진 않으나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대 주민 측은 “국방부의 절차적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군 측은 “새로 변경고시된 계획이 유효하다는 것인 만큼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해 같은 판결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

2010년 11월15일 제주도, 해군기지 공식 수용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단됐던 건설공사도 3개월만에 재개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운동을 벌였다.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2011년 6월19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전국으로 확산

전국 1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해 서울과 제주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구름비 해안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단체들의 천막이 세워졌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

여당 등 5개 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2012년3월7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 개시

해군이 갑작스럽게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며 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는 태도를 강경하게 전환해 공사 정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며 일시 공사정지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국토해양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발파를 저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연행자가 속출했다.

2012년 11월28일 제주 해군기지 예산 '날치기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3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발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문정현·문규현 신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식발식을 했다.

2013년 2월14일 제주해군기지 명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

국방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계획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형식적인 명칭변경일 뿐 제주해군기지는 여전히 국방·군사시설로 건설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제주도는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공식 확인됐다고 해군기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6월24일 원희룡, 주민 진상조사 제안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주민들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과나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총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수용할 것인지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진상조사 일정은 기약없이 연기됐다.

2015년 1월31일 강정마을 군 관사 반대 농성천막 강제철거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내 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에 설치된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국방부는 철거에 해군측 용역 100여명과 경찰병력 900여명 등 1000여명을 투입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2015년 8월5일 제주 해군기지 앞 연산호 군락 폐사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제주와 서울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군락지의 해상공사 전후 변화상'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범대위는 모니터링 결과 2012년 이전에 비해 연산호의 상당수 종이 사라졌으며 남은 종도 개체 수가 줄어들거나 생육상태가 악화돼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2월26일 제주 해군기지 완공

제주 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이 서귀포시 강정해안을 건설부지로 확정된 지 9년 만에 완공됐다. 강정마을회는 같은 날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에서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문화마을'로 선포하고 생명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2016년 3월29일 해군, 강정 주민에 34억 구상권 행사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20여명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12일 정부, 구상권 소송 철회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종적으로 구상권 소송이 철회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019년, 현재에도 계속 철거하라는 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성의 이유

제주 해군기지를 지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전략적 요충지가 제일 크고, 안보적 중요성 때문이다. 제주 서남해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 견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속력 12노트 기준 시 500km, 23시간을 가야 한다. 중국 동해함대에서는 18시간(390km), 일본 사세보에서는 21시간(450km) 걸린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8시간(175km)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을 띄워 서해를 앞바다로 만드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주도 서남해역에 상시 전력을 배치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 지역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상시 초계로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경우 초계함 4척을 가동해야 하고 그 비용은 한 척당 9000억원이 넘어 비용부담이 너무 큰 것도 문제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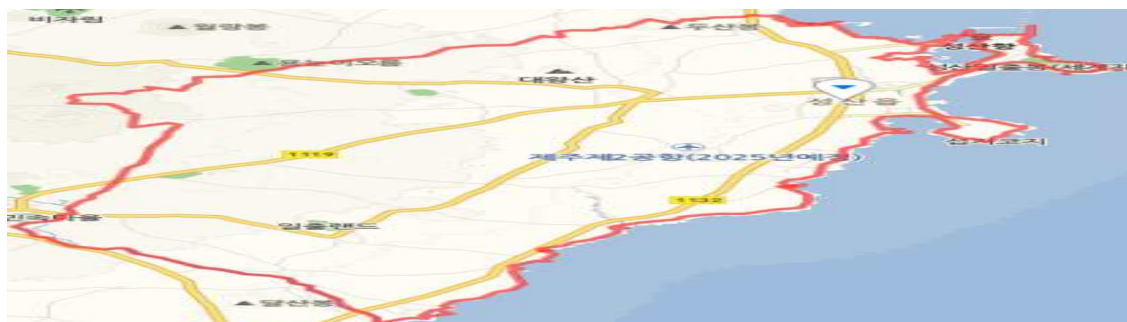
반대 논리는 다양하게 변화 중이다. 절차 잘못에서 시작해 환경, 파괴, 중국 자극, 미군 기지화 같은 이유로 달라졌다. 주민들은 주로 결정 절차의 하자를 거론하고 있다.

외부 세력은 환경·안보 같은 이슈를 내세운다. 이들이 말하는 환경 문제는 “부지 내 개울에 맹꽁이와 멸종 위기 붉은발 말뚝게가 산다”, “항구 앞바다에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이 있다”는 등 ‘천성산 도롱뇽’을 연상시키는 것들이다. 해군은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말뚝게 전체를 포획해 3km 인근 약천사 옆 개울로 옮기는 중이다.

산호의 일종인 연산호는 반대 세력이 중요시하는 이슈다. 그런데 7월 초 야5당 조사단이 직접 바다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했고 바닥에는 모래만 있었다고 한다. 반면 외부세력들은 해군기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포함되고 미 해군의 기지가 되면서 오히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제 2공항 건설

·제주 제 2 공항 위치



제주 제 2공항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0일 서귀포 신산리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서귀포 신산리지만, 실제로는 '서귀포 성산읍 온평'지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에 온평리라고 불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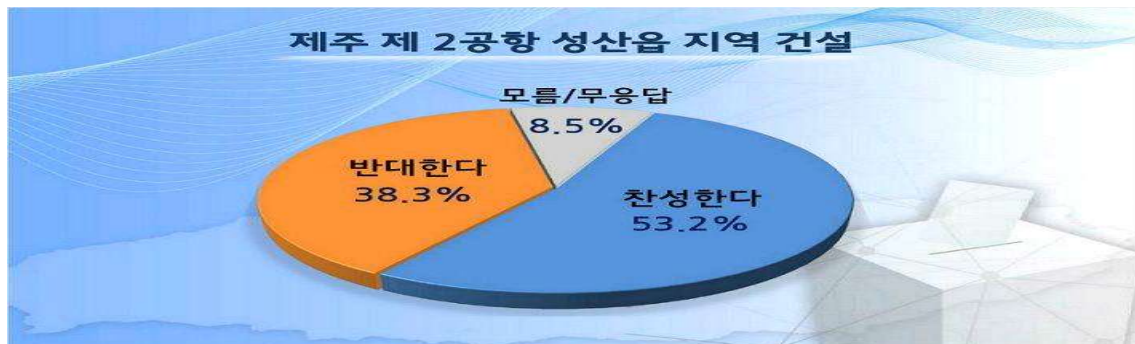
·왜 '서귀포 성산읍 온평리'일까?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두 개의 생활,문화,관광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귀포 주민들이 제

주시에서 열리는 모임은 되도록 가지 않을 정도로 두 생활권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관광 일정을 별도로 잡아야 할 정도로 거리가 꽤 멀다. 만약 공항이 건설된다면 서귀포 지역으로 가야 이 두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서귀포 온평리를 선택했다. 서귀포 온평리에 공항이 건설되니 마치 서귀포처럼 느끼겠지만, 실제로 성산 쪽은 서귀포보다는 제주시 문화권에 가깝습니다. 서귀포이지만 오히려 중문단지 등 서귀포 중심지로 가는 소요시간이 더 멀고, 제주공항에서 성산읍까지는 공항을 빠져 나와 번영로를 타고 가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제주 신공항 예정지의 하나였던 대정읍 신도리도 제주 공항에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지만 신도리에서 중문단지까지는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서귀포 관광을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성산읍 온평리보다는 대정읍 신도리가 훨씬 편한 셈이다. 서귀포 지역에 대규모 국제회의나 대회가 있을 경우 호텔이 많은 중문단지와 가까운 신도리에 공항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최종 건설 예정지는 성산읍 온평리로 지정됐다.

·제주 제 2공항을 짓는 이유

1.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의 숙원사업이소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이다. 제주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정부가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의 규모 및 배치,운영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환경관리계획과 그밖에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 이 시기에 제주도의 입장을 기본계획에 반영 시켜 나가야한다

지역주민 지원대책,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2공항 연계도로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실기하여서는 안된다.

3.제주도의 경제지도를 바꿀 기회이다

'제2공항 추진은 제주와 제주도민을 위한 것으로 건설 예정지 주민에게는 주택,토지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이주와 그에 따른 보상,소음문제에 대한 대책,지역주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창출 방안 또한지역주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정부와 적극 협상하겠다'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 발전 전략을'을 수집해 제2공항 건설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제주도 공항 포화상태를 해결하기위해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 밖에도 제주 제2공항 주변 상가 계발,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경제,사업의 대한 이익이 많다고 한

다.

찬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항편의 증진, 지역간 균형 발전이 있다. 등에 여러 의견이 있다.

·제주 제 2공항에 반대하는 이유

1.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현재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이다.점점 많아지고있는 관광객,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쓰레기제주도는 많아지고있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하여서 큰 파장을 일으킨적이 있다. 또한 소각로 시설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압축용 포장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행정당국이 최근 엄청난 양의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입해 땅 속에 묻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으키고 있다. 현재 제주도 표선매립장과 성산매립장, 남원매립장에는 10여톤에서 많게는 20여톤 이른다고 한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제주 제2공항을 만들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쓰레기도 지금에 몇배로 생길 것이다. 지금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더 생기면 제주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될수 있을 것 이다.

2. 제주도의 소음문제

소음문제도 상당하다. 성산읍의 주민들 대부분이 피해 문제에서 소음이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소음문제로 인해 예상 피해 가구는 1931가구로 추정된다고한다. 적어도 2~3분에 한번씩 비행기가 뜰텐데 그때마다 격는 소음의 피해는 상상도 안간다.

3. 제주도의 환경문제

제주 제2공항의 건설 면적은 495만8000m(150만평) 이다.건설예정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벤다고 하면 몇천~몇만 그루를 벨 것이다.너무많은 환경을 파괴 하게 되고, 제주도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가 많지만, 아마도 공항이 생기면 도로 교통체증, 더 많은 환경문제 등 더욱더 많은 피해가 생길 것이다.

4. 주민들에 생존권에 대한 문제

온평리 주민들은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1월 25일 제2공항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비대위는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 2공항의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에 이어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행동을 위한 결집에 나서면서 향후 제2공항 관련 행정절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온평리민 결의 및 규탄대회'를 열어 제2공항 추진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평리 주민들은 이날 오전 9시 혼인지에 집결해 '온평공항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결의대회가 열리는 도청 앞까지 선전전을 펼쳤다.

제주시에 도착한 온평리 주민들은 선전전 차량을 도청 주변에 배치하고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농성천막 맞은편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온평리민 결의 및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장인 현은찬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성산읍에서는 2015년 11월10일 제2공항 후보지 발표후 신산·난산·수산1리 등 3개 마을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온평리는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꾸려졌다. 온평리 주민인 송종만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사를 지으며 72년간 살아온 땅이 제2공항 발표와 함께 시계가 멈춰 버렸다고 성토했다.

송 부위원장은 “제2공항은 활주로 1개로 시작하지만 미래에는 확장공사로 24시간 공항이 될 것”이라며 “결국 현 제주공항은 없어지고 온평공항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세울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힘이 없다. 외세의 힘에 의해서 제2공항은 군공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온평리민 결의 및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선전전 차량 너머로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농성 천막이 보인다. 성산읍대책위는 9월10일부터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제2공항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 부위원장은 “난산리 주민들은 목숨까지 걸고 제2공항 반대를 위해 싸웠다”며 “온평리 주민들도 푹푹 뭉쳐 난관을 헤치고 살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착주민(이주민)인 박진규씨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타당성 용역 재조사 문제를 언급했다. 박씨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곳에 재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결국 안개일수가 다를 뿐 큰 하자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는 “후보지 발표후 원 지사는 에어시티를 운운하며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설득해 왔다”며 “제2공항 추진은 원 지사와 국토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주도와 타당성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분리해 추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온평리 주민들은 이날 차량 수십여대를 동원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일주도로를 돌아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 집결했다.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양측의 협의는 정치적 득실에 의한 야합”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양 대책위 소속 주민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일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제2공항이 불필요, 환경훼손 우려가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제주 2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이승이 온평리 이장과 제주의 소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절차상의 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 비대위에는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인가?

"총회에서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의 입장이 곧 주민의 입장이다."

- 총 주민 몇 명이고, 비대위는 몇 명인가?

"온평리 주민은 총 1400여명 정도다. 비대위는 34명으로 구성됐다."

- 앞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주민의견 청취하고 있다. 더욱 더 주민의견 들어서 주민 의견대로 방향을 제시하겠다."

- 공항이 들어서는 5개 마을 공동으로 움직일 것인가?

"다른 마을이 저희와 같은 생각 갖고 있다면 연대할 생각이다"

- 제주도에서 특별한 지원대책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가차원 보상 이외에 보상책이 나온다면 그것을 갖고 제주도와 협의할 생각은 있나?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니다. 국가에서 온평리에 선전포고를 했다. 우리들은 마을 땅을 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제주도의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인가

"제주도에서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주민 동의없이 이뤄졌다.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 지역주민 특별한 보상책이 마련된다면 대화 여지가 있나? 마을에 들어선다면 꽤히 승락하시겠나"

"현재 계획이라면 전혀 주민들과 동의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 원희룡 지사는 방송에서 "주민을 만나봤는데 본인 마을에 대부분 의견. 활주로 반대하지만 상업시설은 자기들 마을로 와달라"고 말했다. 현재 계획이 온평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 "그 얘기는 지금 시쳇말로 너죽고 나살자는 것이다. 이 계획은 처음부터 일방적이다. 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전혀 고려안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다. 대규모 댐 건설 등으로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대승적으로 도민과 제주 미래 발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양보할 생각은 없나

"아무리 좋은 개발이라도 주민 동의없이는 없다. 절차상 문제 주민동의없이 이뤄질 수 있나."

- 제2공항 부지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극히 일부라고 들었다. 농토나 임야 대체 토지를 준다면 가능한가?

"도지사도 여러 번 말했다. 공항이 들어서면 에어시티나 상업지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 주민 90%가 거의 노인들이다. 상업지역 생기면 먹고 살 수 있나. 죽을 때까지 농업을 전제로 살고 있는 게 주민들이다. 온평리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생존권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 도정과 원 지사와의 소통은 어떻게?

"지사의 약속 지켜지리라고 믿나. 국책사업이다. 도에서 힘이 있다. 보상도 한다고 하는데, 1000평 보상받고 밖에 나가서 그 땅을 그대로 살 수 있나. 어렵었다. 그대로 수용되는 만큼 피해본다. 성산읍도 14개 마을 중에서 4~5개만 마을만 반대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찬성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제2공항으로 대박이라고 한다. 하지만 왜 우리만 죽어야 하느냐. 같이 살아야 한다."

- 도정은 계속해서 소통의지를 표명했다

"제2공항을 게릴라식으로 발표한 이후 소통은 없었다." - 제2공항 부지 중 온평리가 76%나 되나? "도에서 발표한 토지를 근거로 계산해 보니 온평리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2공항 부지로 150만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176만평이라고 한다. 정부와 도의 발표가 다르다."

반대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건설 반대 목소리에 이어 조기 착공을 원하는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회장 오병관)는 지난 10일 성산읍 관내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 일부 주민과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제2공항과 관련한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앞서 대규모 발대식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세를 위해 반대 의견만 부각할 수 없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공항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 반대측이 국토부 보고회조차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오는 17일 예정된 보고회를 저지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는 17일 오후 3시 제주도 성산읍체육관에서 열린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비자림 도로확장

비자림은 천연기념물 제 374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비자림은 448,165㎡의 면적에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밀집하여 자생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7~14m, 직경은 50~110cm 그리고 수관폭은 10~15m에 이르는 거목들이 군집한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비자나무 숲이다. 옛부터 비자나무 열매인 비자는 구충제로 많이 쓰여졌고, 나무는 재질이 좋아 고급가구나 바둑판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왔다.

비자림은 나도풍란, 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비자란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이기도 하다. 녹음이 짙은 울창한 비자나무 숲속의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회복과 인체의 리듬을 되찾는 자연 건강 휴양효과가 있다. 또한 주변에는 자태가 아름다운 기생화산인 월랑봉, 아부오름, 용눈이오름 등이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등산이나 운동을 하는데 안성맞춤인 코스이며 특히 영화 촬영지로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



·비자림 도로 확장을 시키는 이유

제주 비자림로'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봉개동까지 이어진 총 길이 27.3km의 지방도로이다. 비자림은 수령이 500~800년인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 높이 7~14m, 직경 50~110cm의 비자나무들이 밀집한 숲이다.

이렇게 형성된 비자림로는 현재 삼림욕을 즐기거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로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제주 동부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월선이 없는 2차선 도로인 비자림로는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에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10년 전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하지만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대립하며 논란이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삼나무 2,160그루를 베어내는 것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확장공사를 반대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반대 여론은 확산되었고, 이에 결국 제주도는 지난 7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과 합의하여 비자림로

를 아름다운 생태도로로 만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 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 토목공사 그 자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 조직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등 토목 관련 조직은 공룡과 같은 몸집이 된지 오래이다. 그뿐이겠는가. 이와 연관된 토목산업과 그 연관 사업은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어야만 조직이 유지할 수 있듯이 토목 관련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늘 공사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MB때의 4대강도 결국 현대 등 토목 관련 회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은가. 국토를 난도질하고 강물을 뚫물로 만들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더 노골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로 신설과 확장은 지가 상승과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의 도로 신설 요구나 확포장 요구는 늘 큰 민원이다. 이를 위해 도정과 도의원들이 예산확보에 나서게 되고 또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엮인다. 이런 토목 카르텔이 지난 수십 년간 지역경제를 쥐락펴락 해왔던 것이다. 이러다보니 토건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도정은 매해 돈을 풀어 겨울철에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필요 없는 토목공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 찬성이유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왕복 2차로인 지방도 1112호선(대천~송당) 2.94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포장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8월 난개발과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이 보완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삼나무 수림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여건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의 타당성이다. 제주도 교통정보센터 통계정보에 따르면 도로 확장 공사 구간을 포함하는 대천동사거리(대천교차로)~송당사거리의 상·하행선 일평균 통행속도는 평균 시속 50km/h를 유지 소통이 원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장공사를 통해 통행속도가 대략 20초 정도 빨라질 뿐 20초 때문에 30년생 나무 2000여 그루를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3월에 피는 삼나무 꽃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쭈쭈 뻗어 솟은 도로변의 삼나무를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사람들은 삼나무 군락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가로수로는 적당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 반대이유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시민모임)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한 제주도정의 답변을 재반박했다. 비자림시민모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구시대적 모습을 보이는 제주도의 태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찬반을 아울러 비자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자림시민모임에 따르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도내외 1670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제주도에 제출된 것은 지난 8일이다. 해당 서명은 비자림로의 경관·자연파괴 우려, 비자림로 4차선 확장 반대 의견, 시민 목소리 수용 절차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열흘이 지난 18일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제주도는 자연파괴 우려에 대해 "비자림로는 제주 동부지역의 물류 수송 및 성산일출봉 등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도로 확장 사업은 성산구좌지역 주민들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지역주민 여론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아름다운 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차선 확장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는 "비자림로는 현재 차로폭 3m이며, 노견부 역시 협소한 상황"이라며 "농사용 차량을 포함한 저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대형 차량 운행 시 시야 확보 불량,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목소리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중단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현장답사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며 "현 시점에서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자림시민모임은 "제주도정이 비자림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 의식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비자림시민모임은 "제주도는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존의 주장처럼 1구간과 3구간의 중앙분리대를 3m에서 4m로 넓혀서 교목과 관목을 혼합 식재한다거나 2구간에 중앙분리대를 8m로 만들고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생태적인 방안이 아니며 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걸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로폭이 좁다는 제주도의 답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의 공사를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3m의 도로폭을 3.5m로 넓히고 갓길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겨울철 결빙은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예산 확보 및 대책 마련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며, 농사용 차량을 위해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폭의 갓길을 중간 중간 마련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을 들이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 시민모임이 수 차례 제안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를 모두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들로만 자문위원회를 꾸려 달랑 두 번의 회의로 대안 마련을 끝냈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니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기 보다 이미 제시된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제한적인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찬성과 반대, 시민과 전문가가 고루 참여해 보전과 개발의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비자림로의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루에 100여 그루의 삼나무를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

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사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경관의 훼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 청원으로도 올라온 비자림로 확장



제주에 불품 없는 제주로 변하고있고 합니다. 비자림 자연 환경숲 을 나무 제거 반대합니다. !!!비자림 숲 4차선 반대!!! 매일 300그루씩 제거 하는 비자림 숲 반대!!!! 도로도 얇막히는 구간 2차선 도로만 있어도 충분할 걸 왜 확장하는 구간 인지 원인 조사 하세요. 환경부 는 생 각이 비두인가? 제주도 비자림 숲 2차선 만 충분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갈수있는 도로인데 구지 4차선 도로 확장 시키고 삼나무300그루씩 제거 하는 건지 청청 유내스코로 라디오 에 나오는데 근냥 제주도를 공업단지를 만들던지. 라는 의견과 함께 청원은 금세 33.542명이 되었다.

·환경운동가에게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계획 중단하라!

반환경적 도로개발이라는 비판을 전국적으로 받으며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대천-송당을 잇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3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제주도가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공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행정의 일방통행으로 공사가 강행 되려는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계획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제주도의 주장대로 비자림로의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논리라면 비자림로 전구간은 물론이고, 제주도내 대부분의 2차로는 당장 4차로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설령 교통량이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도로확장 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구간은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이고,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인 곳이다. 제주도 스스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면서 추진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정해진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주의 가치 보전은 내팽개치고 토건사업에만 달려드는 형국이다. 공사 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지만 제주도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확장공사를 강행하려 한다.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나무의 꽃가루 피해 등을 거론하며 도로확장의 당위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 모순일 뿐만 아니라 도로확장 필요성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주장이다. 삼나무의 가치 유무와 도로 확장의 타당성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설령, 삼나무의 피해 때문에 잘라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별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번 공사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되려 도로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굳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 도로확장보다는 현재 차선에서 도로 폭을 늘리는 정도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제주도가 진정 아름다운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싶다면 무리하게 해당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오름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대책과 관리방안 그리고 경관보전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 부디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 구호에 맞는 행정행위를 해주길 바란다.



2019. 03.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비자림로 확장 후에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게 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바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자란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 성산읍 수산2리 입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디)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더욱이 도로 일대에는 천연기념물 수산굴이 있고 대형동굴인 벌라릿굴은 도로 바로 밑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도 비자림로처럼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자림로 상태

지금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제주 제 2공항과 마찬가지로 찬성의견, 반대의견이 여전히 오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남방돌고래

·남방돌고래 크기, 서식지

남방큰돌고래는 몸길이 최대 2.7m, 몸무게 230kg 정도인 중형 돌고래입니다. 5~15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하고 수명은 4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양과 서태평양 연안에 두루 분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에 110여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

·남방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환경운동가 황현진과 평화활동가 조약골을 공동대표로 하여 2011년 설립되었으며,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돌고래 등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래들을 수조가 아닌 바다로 보내야 되는 운동을 제일 크게 중점으로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핫핑크 돌핀스가 해온 일은

- * 돌고래를 바다로 :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 야생방류 및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
- * 돌고래 서식처 및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 해양 오염 감시 및 해양쓰레기 수거

- * 우리가 바다를 만나는 법 : 해양생태감수성 교육 진행
- *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하라 : 고래고기 유통 중단 및 불법포획 감시
- * 국내 최초 육상 고래관찰센터 건립 : 제주돌핀센터와 돌고래도서관 운영
- *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하라 : 돌고래가 살지 못하는 바다는 지구 건강의 적신호
- * 고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다이지 돌고래 포획 및 일본 상업포경 규탄
- * 돌고래 서식처 해상풍력 설려불라 :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난개발 반대운동
- * 군함 대신 돌고래가 뛰어노는 공존과 평화의 바다 : 바다의 군사화 저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의 돌고래들은?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잡힌 큰 돌고래 태지는 2008년 서울대공원으로 수입되어 돌고래쇼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2015년 제돌이, 삼팔이,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동이, 대포까지 모든 친구들을 떠나보냈다. 혼자 남겨진 태지는 이때부터 수면 위로 올라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풀장을 이리 저리 움직이거나 숨을 거칠게 쉬고, 시멘트 위로 올라가는 등 스트레스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태지에 대해 무리를 지어 사는 돌고래 특성상 어울릴 동료 없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태지를 고향인 일본 다이지로 옮겨 풀어주기에는 다이지 지역에서는 아직 고래 포획이 근절되지 않았고, 태지는 금동이나 대포와 종류가 달라 같은 지역에 야생 방류할 경우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서울시 소유였던 태지는 2017년 6월 위탁계약을 통해 쇼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퍼시픽 랜드로 옮겨갔습니다. 당초 위탁 사육 계약기간은 2018년 말까지 였다. 큰 돌고래 평균수명이 25세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남아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태지는 퍼시픽랜드 소유가



되었다. 퍼시픽랜드는 사설 돌고래 공연 업체입니다. 2011년 7월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를 제주 바다에서 20년간 불법 포획해온 사실이 드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돌고래들이 몰수되는 등 출공 문제가 제기된 곳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시의 소유권 이전을 반대해왔다. 실제로 2018년 1월에는 태지가 다른 돌고래들과 함께 돌고래쇼에 동원된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퍼시픽 랜드

퍼시픽 랜드는 20년 넘게 제주바다에 있는 돌고래들을 불법으로 잡아서, 국내에 있는 다른 수족관에

게 돌고래를 공급해왔다. 내부 고발자가 제보를 했고, 해경이 수사를 해 보니 이걸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 재판으로 넘어갔고, 재판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 1개월이 걸렸다. 재판과정에서 돌고래들은 수조에 남아 있는데, 이 돌고래들을 누가 보더라도, 몰수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그 이유는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돌고래들을 포획해 왔으니깐 이었다. 퍼시픽 랜드에서는 돌고래의 먹이를 계속 줘야 하는 상황이고, 물도 갈아야 해서 관리비가 한 달에 몇 백만원씩 든다. 그게 퍼시픽 랜드는 아까웠다. 제대로 먹지도 안주고, 물도 안 갈아 주고, 그러면 좁은 수조에 있는 돌고래들은 죽기 마련이다. 폐렴, 폐혈증 등 증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퍼시픽 랜드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어미돌고래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새끼와 같이 돌고래쇼에 바로 출산 후 3, 4일밖에 안 돼서 쇼에 나왔다. 수조에서 새끼를 낳았지만, 새끼를 낳은 장소는 다시 공연장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반복되어서 현재까지 왔다. 2004년에는 돌고래 쇼 중간에 죽기도 했다. 퍼시픽 랜드는 돌고래 폐사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병들거나, 나이가 든 돌고래는 퍼시픽 랜드 바로 앞인 제주 중문 앞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제주의 역사

가. 선사시대

<구석기시대의 유적/유물>

-빌레못굴



제주도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7만~8만년 전의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속칭 '빌레못굴' 유적이 있다. 이 빌레못굴 유적에서는 타제석기와 함께 오늘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순록과 황곰의 뼈가 발굴되었다. 순록과 황곰은 오늘날 우리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만주 벌판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물이다. 그렇다면 이들 동물들의 뼈가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 옛날에는 제주도가 오늘날과 같이 섬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연륙설을 반영하는 것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culture/history/period/period01.htm>), 네이버 지식백과

-천지연 생수귀유적



2005년 3월16일 서귀포시향토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천지연 생수궤유적은 너비 270cm 높이 600cm의 바위그늘 유적으로 제주어로는 ‘궤’라고 부른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생수궤 유적 발굴 조사를 진행해서 구석기시대 대표 유물인 ‘좁돌날몸돌’과 ‘좁돌날’, 굽개, 밀개 등 구석기 유물 100여점을 다량 출토했다. 국립제주박물관 조사팀은 “생수궤 유적은 최소한 후기구석기시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보인다”며 “특히 유적에서 발굴되는 다량의 뿔석기들 중 돌날몸돌과 좁돌날몸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반석을 이용한 석기제작기법들은 한반도의 다른 동굴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생수궤 유적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신석기시대의 유적/유물>

-고산리 선사유적



맨 처음 발견은 1987년 5월 고산리 주민이 흙을 채취하기 위해 땅을 파다 석창과 굽개를 발견하고 제주대학교 사학과 학생을 통하여 이청규 교수에게 알려졌다. 같은 달 출토지점 일대를 답사하여 침두기 등 타제석기 3점을 추가 발견되고 용기문토기가 채집된 후 제주대학교박물관의 1991년 지표조사 및 3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 보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9년 국가사적 제412호로 지정되었다.

-고토기(古土器)



현재까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12,000~10,000년 전 생산된 고토기(古土器)이다. 특히 섬유질토기인 일명 ‘고산리식토기’는 전체적인 출토수량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토기성형시 식물(초본류)의 줄기 혹은 잎을 점토와 함께 섞어 만든 후 소성(불에 구움) 시 타 없어진 후 그 흔적이 토기 내외면 뿐만 아니라 속심에도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섬유질토기는 한반도에서는 알려진 바 없는 토기로 신석기시대 주요 대표 토기인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서며 아무르, 연해주, 바이칼, 일본열도, 중국에 걸쳐 넓은 분포권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신석기시대 초장기의 고토기(古土器)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출처: 제주고산리유적(<http://gosanriyujeok.co.kr/>)

<청동기시대의 유물/유적>

-상모리패총 유적

민무늬토기시대 유적으로는 보기 드문 조개더미 유적이다. 1986년 제주대학교의 이청규(李清圭)에 의해 확인되었다. 유적은 해안에 발달한 사구층(沙丘層)에 형성되었다. 조개더미에서 100여 m 정도 떨어진 곳에 유물산포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조성 때 유실되었다.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은 민무늬토기로서 적갈색 조질민무늬토기(粗質無文土器)와 마연토기(磨研土器) 두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 조개더미 유적의 대부분은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에 해안 및 섬지방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민무늬토기시대 혹은 청동기시대의 것으로는 이 상모리 유적을 제외하고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것은 이 시대 사람들은 강변 구릉상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경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모리 조개더미는 당시 제주도 민무늬토기인들이 다른 지방과는 달리, 농경생활보다는 어로생활에 치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142>)

나. 제주 탄생 설화

-태초의 세상이 열린 이야기, 개벽신화

오랫동안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어둠과 혼돈으로 휩싸인 암흑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하늘 머리가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열리며 미세한 금이 생겨난 것이다. 금이 점점 벌어지는 동안 땅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조금씩 분명해져 갔다.

이때 하늘에서 푸른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검은 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쳐지고 트이면서 만물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별이 가장 먼저 생겨났는데 동쪽 견우성, 서쪽 직녀성, 남쪽 노인성, 북쪽 북두칠성, 중앙에는 삼태성이 돌아나자 많은 별들이 속속 돌아 펼쳐지며 하늘 가득 자리를 잡았다.

별빛만으로는 아직 어두웠는지 어두운 채로, 동쪽에선 푸른 구름이, 서쪽에선 하얀 구름이, 남쪽에선 붉은 구름이, 북쪽에선 검은 구름이, 중앙에선 누런 구름이 오락가락했다. 어느 순간, 천황달이 목을 들고, 지황달이 날개를 치고, 인황달이 꼬리를 쳐 크게 우니, 동방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으며, 이 때 하늘에서 천지왕이 두 개의 해와 두 개의 달을 내보내자, 세상이 밝아지며 천지가 활짝 열렸다고 한다.

-제주섬이 빚어진 이야기, 설문대 전설

옛날 옛적에 몸집이 아주 큰 설문대 할망이 있었다. 설문대 할망은 힘 또한 장사였는데, 어느 날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날라다 넓디넓은 푸른 바다 한가운데 붓기 시작했다. 얼마나 부지런히 날라다 부었는지 바다 위로 섬의 형체가 만들어졌고, 저절로 만들어진 오름들이 보기 좋았는지, 설문대는 흙을 집어 섬 여기저기에 오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흙을 너무 많이 집어놓았다 싶은 것은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서 균형을 맞추었다. 봉우리가 움푹 파인 오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드디어 섬 한가운데에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한라산이다. 그런데 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지, 봉우리를 툭 꺾어 바닷가로 던져버렸고, 남서쪽 바닷가로 날아간 그 봉우리는 산방산이 되었다.

-탐라국이 생겨난 이야기, 탐라개국신화

한라산 북녘 기슭 땅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더니 땅 속에서 세 신인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이 차례로 솟아났다. 세 신인은 거친 산야에서 사냥을 해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어느 날 동쪽 바닷가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떠 내려왔다 그것은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상자였다. 상자를 여니,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새알 모양의 옥함을 지키고 있었다.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아리따운 처녀 셋과 망아지와 송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앗이 보였다.

상자에서 나온 남자는 “나는 동해 벽랑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세 따님을 두셨는데, 삼신인이 솟아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니, 모시고 가라해서 왔습니다. 마땅히 배필을 삼으셔서 대업을 이루소서”라고 말하고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세 신인과 공주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차례로 짝을 정해 혼례를 올린 뒤, 물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가 차례로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했다. 이때부터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져 마침내 ‘탐라국’을 이루게 되었다.

출처: 제주관광공사

다. 고대 : 탐라국 시기 (~고려 복속 전)

-탐라국

탐모라국(耽牟羅國)·섭라(涉羅)·담라(儋羅)·탁라(毛羅)라고도 표기되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초기까지 오랫동안 불려졌던 칭호이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제주도 3성(姓) 시조신의 하나인 고을나(高乙那)의 15세손 고후(高厚)·고청(高淸)과 그 아우 등 3형제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렀는데, 이 때는 신라 성시(盛時)였다. 3형제가 들어와 조공하자 신라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맏아들에게는 성주(星主), 둘째에게는 왕자(王子), 막내에게는 도내(都內)라는 작호를 주고 국호를 탐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서 탐라국이라는 명칭은 유래했으며, 실제로는 '섬나라'라는 뜻이다. 성립연대는 신라 성시라는 시기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이므로 문무왕 때로 추측된다. 그 이전의 사회는 3성씨족의 공동연맹체적인 체제로 보이며, 신라의 삼국통일기에 이르러 3성 가운데 세력이 강성한 고씨(高氏) 씨족이 군장(君長)으로 군림해 국주(國主)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설화에 의하면, 처음에는 고을나·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 등 3성의 시조가 모흥혈(毛興穴, 三姓穴)에서 나타나 그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은 키가 조금 작고 언어는 한(韓)과 같지 않으며,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소와 돼지를 잘 기르며 또 노루와 사슴이 많으며,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하며, 여름에는 초옥(草屋)에 살고 겨울에는 굴실(窟室)에 산다고 한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한조(韓條)에는 “주호(州胡)”라고 지칭하면서 배를 타고 중국과 한(韓)에 내왕하며 교역을 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도 오수전(五銖錢)·화천(貨泉) 등의 중국화폐가 발굴되었다.

대외관계는 제일 먼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백제와 밀접해 476년(문주왕 2) 4월에 사신을 파견해 방물(方物, 토산물)을 바치고 그 사신은 좌평(佐平)의 관등을 받았다. 498년(동성왕 20) 8월에는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다가 백제동성왕이 친히 정벌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과하고 공부를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

고구려와는 가옥(珂玉)을 수출하는 등 교역을 했으나 백제에 복속된 이후로는 교섭이 두절되었다. 한편, 신라와는 662년(문무왕 2) 2월에 탐라국주 좌평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와서 항복함으로써 이 때부터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 일본과 가깝게 지내다가 678년 2월에 신라 사신의 경락을 받았다. 이 뒤로는 신라와 활발하게 교섭하였다.

한편, 중국 당나라와는 661년 8월에 왕 유리도라(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 일본과는 661년 당나라에서 귀국하던 일본사신의 배가 풍랑을 만나 탐라국에 대피했다가 귀국할 때,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 9명이 이들을 따라 일본에 간 일이 있는 뒤로 매우 교섭이 활발해 많은 왕자와 좌평이 일본을 다녀왔다. 또 680년 9월과 686년 8월에는 일본에서 사신이 왔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 말기에는 점차 복속관계에서 벗어나, 신진세력인 고려에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여 925년(태조 8) 11월 사신을 파견해 방물을 바쳤다. 938년 12월에는 탐라국주 고자견(高自堅)이 태자 말로(末老)를 파견해 입조하고, 고려로부터 신라의 예에 따라 성주·왕자의 작위를 받아 고려의 번국(蕃國)으로서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해 나갔다. 그 후 1105년(숙종 10)고려의 지방행정구획인 1개의 군(郡)으로 개편되면서 반독립적인 체제는 사라졌다.

1153년(의종 7)탐라군은 다시 격하되어 탐라현이 된 뒤로는 고려조정으로부터 파견된 현령이 탐라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탐라국 체제는 없어지고, 성주와 왕자의 관직만이 남아 상징적 존재로 유지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1404년(태종 4) 5월에 성주는 좌도지관(左都知管), 왕자는 우도지관(右都知管)으로 개칭되어 존속하다가, 1445년(세종 27) 6월에 이것마저 폐지되어 이 때부터 탐라의 귀족계급은 완전히 평민화되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라. 중세 : 목호의 난

정의

고려 공민왕 때 탐라(耽羅: 제주도)의 목호(牧胡: 몽골의 牧子)들이 일으킨 반란.

역사적 배경

1273년(원종 14)원나라는 탐라의 삼별초 난을 진압하고, 이곳에 군민총관부(軍民總管府)를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두어 다스렸다.

1277년(충렬왕 3)에는 목마장(牧馬場)을 설치, 목호를 보내어 말을 기르게 하였는데, 이 일은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다. 그 뒤 1295년 왕의 교섭으로 탐라가 고려에 귀속되어 이름을 제주(濟州)라 고치고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을 파견하였다. 목마장은 가끔 원나라가 직접 경영하기도 하였다.

1370년(공민왕 19)명나라와 국교가 굳어지고 제주의 말을 명나라에 보내게 되었을 때, 목호들은 “우리 세조황제(世祖皇帝)가 방축(放畜)한 말을 적인 명나라에 보낼 수 없다.”라 하여 소란을 일으켰다.

경과 및 결과

1372년 예부상서(禮部尙書) 오계남(吳季男)을 명나라에 보내어 말을 바치기로 하였고, 명나라의 유지별감 겸 간선어마사(宥旨別監兼揀選御馬使) 유경원(劉景元)과 함께 제주에 갔다.

이때 목호 석질리(石迭里)·필사초고(必思肖古)·독불화(秃不花)·관음보(觀音保)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유경원과 목사 겸 만호(牧使兼萬戶) 이용장(李用藏)을 죽였다.

이에 제주를 치려했으나, 제주인(濟州人)이 판관 문서봉(文瑞鳳)을 권지목사(權知牧使)로 추대하고, 말을 바치겠다고 해 더 이상 사태의 악화는 없었다. 그러나 목호의 세력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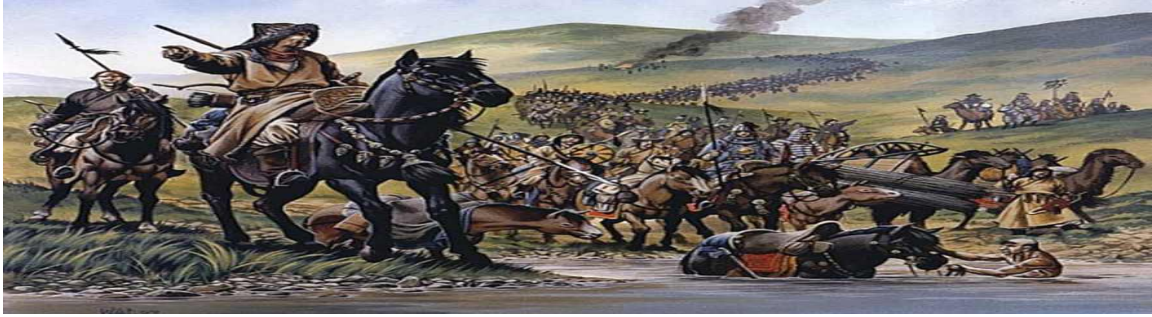
1374년명나라가 북원(北元)을 치려고 제주의 말 2천 필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하평리(門下評理) 한방언(韓邦彦)을 제주에 보냈을 때에도 목호 석질리·필사초고·독불화·관음보 등은 공출을 거부하고 다만 3백 필만 내놓았다. 명나라 사신 임밀(林密)과 채빈(蔡斌) 등은 2천 필에 차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하자, 목호를 토벌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최영(崔瑩)을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 밀직제학(密直提學) 염흥방(廉興邦)을 도병마사(都兵馬使), 삼사좌사(三司左使) 이희필(李希泌)을 양광도상원수(楊廣道尙元帥), 밀직(密直) 임견미(林堅味)를 부원수(副元帥), 판송경부사(判崇敬府事) 지윤(池堧)을 경상도상원수(慶尙道尙元帥), 동밀직사사(同密直司事) 나세(羅世)를 부원수,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김유(金庾)를 삼도조원수 겸 서해·교주도도순문사(三道助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로 삼아 각각 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치게 하였다.

이때 전함이 314척에 예졸(銳卒)이 2만 5600여 명이 되었다. 그리고 문하평리 유연(柳淵)을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홍사우(洪師禹)를 전라도도순문사(全羅道都巡問使)로 삼아 각각 진(鎭)에 유수(留守)하게 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

토벌규모를 보면 당시 목호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에 잔존하던 몽골인과 부원세력이 상당히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영은 적(賊)의 괴수 3인을 처단함으로써 목호의 난을 평정하였다.

한편, 명나라 사신은 말 3백 필만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중 채빈은 개주참(開州站: 鳳凰城)에서 호송을 맡았던 김의(金義)에게 피살되었다. 이것으로 고려와 명나라의 외교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마. 근대 :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

-방성철의 난

발생일: 1898년 2월 22일

종료일: 1898년 4월 4일

사건 사유: 제주도에서 방성철 등이 가혹한 세제징수의 시정 등을 요구하며 일으킨 반란

발생지: 제주 관아

시대: 근대-개항기

방성철의 난은 제주 1차 민란이라고도 하며, 제주 목사 이병휘의 가혹한 징세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화전세와 목장세, 호포, 환자의 지나친 징수를 시정해 달라며 1898년 2월 22일 장두 방성철과 광청리 주민 수백 여명이 제주목 관아에 몰려와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목사 이병휘는 시정을 약속하였고 난민들은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병휘는 오히려 방성철을 잡아들이고 비밀리에 60명의 장정들을 조천리로 불러들였다. 이에 지역민들이 봉기하면서 민란으로 확산되었다. 민란은 전라남도 출신으로 1891년 제주도에 들어온 방성철이 주도하였다. 그는 친군을 구성하고 통문을 돌려 민심을 고문하고 매 가호당 장정 1명씩 강압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각기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남자를 각인한 목봉을 들고 2월 8일 제주성으로 향하였고, 29일 성내에 들어갔다. 이 남자를 근거로 이 민란이 남학당이라는 종교 조직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때 목사와 대정군수 채구석은 구타를 당한 후 성밖으로 쫓겨났고 수서기 문주호가 구타로 사망하였다. 성을 점거한 난민들은 관아를 부수고 공문서와 관인을 소각하였다.

‘3월 2일 민란 지도부는 제주, 대정, 정의의 세 군수를 혁파하고 환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방문을 성 내에 붙였다. 또한 각 마을에 전령을 보내 도내의 모든 배를 물으로 끌어올려 묶어놓아 육지와와의 연락을 두절 시키고 호고를 열어 쌀을 풀고 무기고의 창과 검을 꺼내어 중민을 무장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성내의 양반들은 5일 조천으로 도망하여 그고사의 양반들과 합세하여 토벌군을 구성했지만 방성철등의 선제공격을 받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흩어졌다. 이후 방성철 등 지도부는 장기전략을 모색하며 무너진 성과 무기를 보수하여 전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전 정의현감 홍재진 등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창의군을 모아 방성철 등 지도부가 성을 비운 사이 성을 장악하게 된다.

이때 민란에 가담했던 최형순 등이 도망하여 그들과 합세하여서 방성철 부대의 사기와 전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그 결과 방성철이 이끄는 부대는 애월을 귀리로 퇴각하였으나 추격해온 토벌군에게 궤멸당하며 이때 추가로 피신하였던 방성철도 4월 4일에 처단 되었다. 1만명 이상이 참가한 민란은 3

년후인 1901년의 제 2차 제주 민란, 이재수의 난 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재수의 난

1901년에 제주도 추신 이재수가 가톨릭교 프랑스 선교사 푸마실과 그를 배경으로 횡포를 일삼는 불
량한 신자를 토벌하고자 의병을 일으켰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바. 현대 : 4.3 항쟁

-제주 4.3 사건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마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시위 군
중들은 경찰서까지 쫓아갔고, 경찰은 습격으로 오해하고 시위대를 발포했습니다. 미군정 당국은 발포
사건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정당방위로 주장하고 3.1절 기념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을 연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경무부에서는 경찰서를 포위 습격하려 했기에 불가피하게 발포했다고 해명했고, 민심은 들
끓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 총파업이 발생하여 제주도의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3월 15일부터 파업 관련자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도 또 다시 군중에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4월 10일까지 약 500명 가량을 검
거했는데 검거자 중 66명의 경찰이 파면되었고, 그 자리는 서북청년단 소속으로 충원됨으로서 제주
도민들과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져 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유엔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
게 됩니다. 이에 좌파 세력은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면서 전국적으로 2.7 투쟁을 전개하였고, 미군
정은 당시 반미 감정이 높았던 제주도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자정 무장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의 무장전위대는 도내 20여개
의 경찰지서 중 11여개의 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숙소 및 국민회, 독립축성
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과 관공리 집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군정은 9연대
에 진압작전 출동을 명령하는 등 병력을 증강시키고 부산 등 타 도로부터 차출한 1,700여명의 경찰
을 파견하였습니다. 미군정장관 딘은 평화협상을 거부하고, 제주도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련
의 사건들을 유격대의 소행이라고 조작하였습니다.

제주도민들은 5.10 총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고, 제주도에서의 5.10 총선거는 3개
선거구 중 두 곳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미국은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 전투 사령
부를 설치하고, 독립 유격대대를 투입하여 유격대의 잔존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최후의 총공세를 감
행합니다. 그 결과, 3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약 2,300명의 유격대가 사상하였고, 약 1,600명의 민
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수립 이후에도 군 작전 지휘권은 미군에 귀속되어

있었고 수도권구경경찰청 소속 경찰관 800명이 제주도로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11월에는 군경 토벌대가 제주 조천면 교래리 주민 30명 총살을 시작으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작전은 3개월 가량 지속되며, 대부분의 4.3 희생사건이 이 무렵 발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을 선포하며, 12월 31일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는 무장토벌대와 인민유격대의 충돌이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제주도에 실무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 선정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1947년 삼일절 경찰 발포사건을 계기로 긴장감이 조성되어,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연계, 경찰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을 4.3 무장봉기의 시발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2만 5천~3만 여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2013년, 국회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 내용을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평화 재단을 통해 국가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생활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구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순이삼촌>, 현기영'을 읽고

◇ 개인 서평(짧은 감상평)

이담

사실 제주도 4.3사건에 대해 몰랐다.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제주 4.3사건을 좀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 순이삼촌을 읽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는 비참한 사건들은 제주 4.3사건 이외에도 있지만 자연의 섭으로 떠올려지는 제주도에 아픈 과거가 있다는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제주도를 갈 때면 놀러간다는 생각에 항상 들떠있었다. 4.3사건을 알고 나의 행동을 이제야 뉘우친다는게 4.3 희생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이번 제주도 여행에선 제주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책에 그날의 생생함이 잘 담겨있는 것 같아 좋았다. 지금까지도 제주 4.3 북촌리 사건을 자세히 알게 되어 다행이다. 얼마나 무섭고, 어이없고, 무서웠을 그날을 위로 해 드릴 수 없다는게 너무 죄송하다. 내려지는 지시에만 따라 같은 민족을 죽인다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난다. 제주 4.3사건이 지금이나마 알려지고 있어 다행이다. 하루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오명민

나는 꽤 책을 읽지만 이 책은 정말 재미가 없었다. 제주도 방언이 중간 중간 나와서 신기했다. 제주도랑 반도랑 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북촌리 사람들이 정말 큰 충격을 느꼈을 것 같다. 갑자기 군인이 모이라고 했는데 총살을 당한 것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다. 영문도 없이 죽임을 당해서 억울할 것 같다. 우리나라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로 죽이다니 정말 화

가 난다. 정부도 문제이지만 군인들이 그것을 실행한 것도 정말 나쁘다. 순이 삼촌은 학살 사건을 회상하면 정말 사는 게 힘들었을 것 같다. 엄청난 고통을 하루하루 정말 고생하셨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금 알게 되어서 좋았다.

양승혁

3학년 무빙 필독으로 순이삼촌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내가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읽는 동안 집중을 잘 못하는데 북촌리 대학살사건은 꼭 기억해야 할 가슴 아픈 사건이라 졸음을 이겨내고 읽었다. 책을 읽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제주 사투리가 많이 나와 읽기가 조금 불편했다. 소설 속 순이삼촌이 당시 4.3사건에 고통받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고 슬펐다. 순이삼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도 그날의 상처 때문에 경찰에 대한 기피증도 생기고 또 메주콩 사건 때문에 결벽증도 생겼다고 한다. 순이삼촌은 그날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순이삼촌은 자식들이 묻힌 옴팡밭에서 사람의 뼈, 탄피를 골라내며 30년을 과부로 살다가 독약을 먹고 생을 마감했다. 책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들었지만 정말 가슴 아픈 그날의 사건을 알게 되어 좋았고 시간이 남을 때 '순이삼촌'을 한번 쬐은 읽어보고 싶다. 독후감을 자주 써보지 않아서 항상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다.

김서준

1. 제주도 사투리가 진짜 많다.
 2. 제주 4.3 사건을 거부감 들지 않게 은유적으로 잘 표현했다.
 3. 제주 4.3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과거를 잘 표현했다.
 4. 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4.3 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에 대한 감정을 잘 표현했다.
 5. 4.3 사건에 대하여 가벼운 분위기지만 사실을 접할 수 있다.
- 4.3 사건에 대하여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상태로 소설을 읽었는데 가볍지만 전체적으로 4.3 사건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순이삼촌>을 읽고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공부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제주도 사투리가 글의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오히려 제주도 현지의 느낌을 잘 느껴서 좋았다.

안희

무빙 필독서로 읽으라는 쌤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었다. 읽기 전 '내용은 좋지만 사서 읽을만큼 재밌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대는 하지 않고 읽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한자가 나왔고 뒤로 갈수록 알아듣기 어려운 제주도 방언들이 많이 나와 대화하는 부분은 앞뒤 부분으로 이해해야 했다. 다 읽고 며칠 지나 무빙숙제를 하던 중 북촌리 학살사건에 대한 영상을 봤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북촌리 학살사건 생존자 할머니가 나와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순이 삼촌이라는 책이 정말 와닿고 이해가 갔다. 또 내가 정말 얕은 지식 들로 제주 4.3에 대해 잘 안다고 이야기 했던게 부끄러워졌다. 책에서 순이 삼촌은 학살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나와있는데 순이 삼촌 뿐만이 아니라 제주 학살사건 피해자, 목격자 분들 대부분이 4.3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연좌제나 순이 삼촌같이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4.3이 끝난이후에도 정말 많은 피해를 받았을거라는 걸 알고 더 마음이 아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제주 4.3에 대해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유재훈

3학년 무빙 필독으로 순이 삼촌을 읽었는데 내가 3년 동안 책을 많이 읽었다. 그중에서 순이 삼촌만큼 슬픈 책은 없었다. 요약해서 슬픈 책이다.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별 통보를 들었다는 내용에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슬펐다. 책 내용에 제주도 사투리가 많이 포함되어서 읽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사투리 옆 가로에 표준어가 있어서 읽기가 조금 좋다. 그리고 순이 삼촌이 여자였다는 결말에 깜짝 놀랐다. 왜냐면 “삼촌”를 생각하면 남자로 생각하는데 여자였다는 이 부분에서 놀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촌리 대학살사건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란 걸 어제 10시에 알았다. 왜냐 나는 이 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이다.

김동현

나는 순이 삼촌이라는 책을 읽었다.

읽게 된 계기는 3학년 무빙 필독서이고 독후감이 숙제라서 읽게 되었다.

처음에 이 책은 뭘 얘기하는 책인지도 몰랐고 제주도의 4.3 사건을 주제로 흘러가는 책이라는 것만 알았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너무 제주 4.3사건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됐다.

우선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할아버지가 말을 안해서 손자를 데려와 협박하여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게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가 있는지... 너무 무서우면서 충격적이었다.

또 사람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게 너무 화나고 속상했다.

이러한 사건이 아직 7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

그리고 순이삼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도 안 된다. 가족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고 그 충격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충분히 정신이상이고 환청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책이 지루하지 않고 읽기 쉽게 되어있지만 일기 불편했던 점이 꽤나 있었다.

첫 번째는 제주도 사투리가 나와도 너무 나온다는 것이었다. 물론 제주도의 얘기를 하는데 사투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투리 뒤에 뜻을 다 알려주고는 있지만 뜻을 안 알려주는 것도 많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드나드는데 좀 어지러울 때가 많았다.

또 나도 어제 조끼리 모여 얘기하며 알게 된 건데 순이 삼촌은 '10년전에 죽은 것이 아닌 30년 전에 죽은 것일지도...'라는 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며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을 이해하고 좀 슬펐다.

이 책을 읽으며 제주 4.3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 좋다!

박선영

4.3 사건 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다가온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생각 들 정도로 몰입이 잘 되었고 그만큼 무섭고 소름 끼쳤다. 내용에 나오는 대사들이 다 제주도 방언이라 이해를 못 한 부분도 많았지만, 방언으로 써서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 거 같다. 순이 삼촌은 제주도 4.3 사건 현장을 글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거 같다. 은정쌤께서 왜 소장 가치가 있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지금도 내가 그 시대에 있던 것처럼 무섭고 불안하다. 책으로만 읽은 나도 이런데 4.3 사건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일 수 있을까. 같은 사람끼리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 없는 사람들

이 죽었다. 그 이유 하나로. 성별 상관없이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무자비로 잡아 죽이고 마을에는 불을 지르고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그날을 고통을 책을 통해서 알게 들여다 본거다. 내가 책을 읽으며 느낀 공포는 그 당시 공포의 반의 반도 못 할거다.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건이라 한다. 그정도로 큰 일인데 제대로 4.3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거 같다.

나는 순이 삼촌을 읽으며 그날의 상황을 잠깐이나마 알게 느끼고 들여다 보았다. 그래도 나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공포는 가늠조차 못하겠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날 무고하게 죽어 나가던 희생자들이 목숨을.

임조은

너무 읽으면서 충격적이었다. 4.3을 알고는 있어도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크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순이 삼촌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씩 알아갔지만., 그만큼 슬픔이나 그런 상황,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었다. 순이 삼촌의 배경이 된 북촌 대 학살사건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일이었다. 제주 4.3사건에 있던 제주 도민들이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순이 삼촌도 자신만의 이념, 사상에 휩쓸려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학교 운동장에 연설들으라 오는 재촉에 못이겨 가고, 그사이에 군인들은 마을을 모두 불을 지피고, 군인들은 돼지를 몰 듯이 사람들을 몰면서 근처 밭으로 가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학살시킨 북촌 대 학살사건에서 살아남으신 순이삼촌은 자식들이 죽고, 본인이 살아남은 그 밭에서 유골, 탈피를 골라 내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셨지만. 평생동안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살아 남았던 자리에서 자신의 숨을 끊어버리셨다. 읽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마음에 드는 문장은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죄악이었다.' 라는 문장은 아마도 제주도민들이 제일 하고싶었을 말이 아닐까 싶다. 군인들이 평화롭게 사는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꼭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궁금점이 많았다. 평화로운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나는 아직 너무 아는 것이 없었다. 궁금했지만,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런 내가 순이 삼촌을 읽으면서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제주도의 4.3사건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꼭 기억하고, 4.3사건도 세월호 사건처럼 영원히 잊지않고 기억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건,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조상현

나는 현기영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 순이삼촌을 읽었다. 순이삼촌에 나오는 대표 인물은 순이삼촌과 길수형과 고모부, 나이다. 이 책의 줄거리는 서울에서 사는 '나'가 8년만에 할아버지 제사에 가려고 제주도로 향했다. 그런데 그 곳에 모인 친척 중에 순이삼촌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말을 쉽게 하지 않았다. 가장 어르신인 친척이 '나'에게 순이삼촌은 저번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너에게 알릴 시간이 없었다며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순이삼촌의 죽음이 제주도의 4.3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여기서 제주도의 4.3 사건은 쉽게 말하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주 항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그녀를 대리러 온 사위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죽음 원인은 모든게 환청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쯤에 어떤 학교 운동장에 국군에 의해 소집된 마을사람들은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잔인하게 참살되었다. 이 사건은 군경쪽에서 만들어낸 무리한 작전이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 속에서 순이삼촌은 자신의 두 아이를 잃고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리적 불안감은 매우 심해졌다. 순이삼촌은 이 사건을 겪은 후에 경찰들을 피하려고하는 기피증이 심화되었고, 그 이후 일어난 제주공 사건으로 결벽증까지 가지게 되

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청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결국 평생동안 이러한 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평약을 먹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순이삼촌의 죽음은 결국 4.3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나는 이 감동적인 4.3 사건에 관련된 순이삼촌을 읽고 나서 내가 아무리 제주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사투리 때문에 읽기가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제주도 사투리 때문에 더 생생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을 읽으니 4.3 사건때 무고하게 죽어가던 제주도 사람들의 그 슬픔이 내 마음 깊숙히 다시 한번 더 새겨 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끔찍한 4.3 사건 때 돌아가신 죄 없는 제주도 사람들의 억울함을 잘 배워서 이 다음에 그 억울함을 달래주고자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겠고 또 이러한 사건이 또 반복되지 않게 막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나오는 순이삼촌 처럼 4.3 사건 때 살아남아도 몇 십년동안 그 슬픔과 끔찍함을 잊지 못해서 많은 병이 생긴다는 것조차 매우 슬펐고 안타까웠다.

최은솔

처음에 순이 삼촌이라고 해서 순이라는 아이와 순이의 삼촌에 관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먼 친척을 남자든 여자든 친척을 다 삼촌이라고 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저게 사람인가?'였다. 마을에 있는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아무런 지 않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협박하는 모습이 너무 잔인해보였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땅 하나를 온통 피 바다로 물들여 버렸으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건 직접 4.3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화가 나는 것보다 공포와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것 같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남아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순이삼촌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을 모두 잃고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신경쇠약과 결벽증, 환청까지 생겼으니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기분이 아니었을 것 같다. 초반에 주인공이 '순이삼촌은 한달 보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삼십년 전 그날 밤에서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의아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 단박에 이해가 되었다.

4.3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몰랐는데 순이삼촌을 읽고 4.3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뜻깊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모르고 산 것 같아서 4.3때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방연우

나는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조차도 잘 몰랐다. 다행히 '순이삼촌'을 읽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다. '내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이 정도였나?'에 대해서도 충격적이었고, 실제로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너무 무서웠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까지 할 수 있나?' 까지도 생각을 해봤다. 근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제주도에서 살았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섭고 끔찍했을 것 같다. 그때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다.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다른 것은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꼭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양민혁

처음에는 믿겨 지지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굴에 수류탄을 던지고 아이를 내팽개치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총으로 쏘 죽이고 사람이 할 짓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죽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할머니를 총 개머리판으로 후려치고 몽둥이를 맞으면서 기어가는 사람들 뒤통치를 쏘버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현재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하고 4.3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책에 나오는 순이삼촌은 신경이 쇠약한 정신질환 환자이고 4.3이라는 사건에서 얻은 후유증이였다. 순이삼촌이 평소에도 자신에게 들리는 것이 부풀리도록 들리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였다.

이종은

책 중간중간에 제주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조금 힘들었다. 일단 순이 삼촌이 너무 불쌍했고 이 책을 계기로 잘 몰랐던 4.3 사건에 폐해를 더 깊게 잘 알 수 있었다. 책 중간에 '나는 순이삼촌의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죽음이라 생각한다' 라는 부분에서 매우 인상 깊게 읽었다. 이 책을 다 읽고 4.3 사건이 더 궁금해졌고 이번 제주도 무빙이 더욱 기대가 된다.

이하은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거지?' 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순이삼촌은 내게 4.3을 공부할 계기를 주는 책인 것 같다. 항상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 나는 그냥 사람들을 학살한 끔찍한 사건 정도로만 생각했다. 4.3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순이삼촌을 읽고서 4.3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이삼촌의 줄거리는 고향에 내려간 주인공이 순이삼촌이 자살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순이삼촌은 심각한 신경쇠약 환자이다. 심지어 환청까지 듣는다. 그런 순이삼촌이 자살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이삼촌이 죽다 살아났던 4.3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는 내용이다. 사실 사투리도 너무 많고, 어려운 말도 많았다. 그래서 4.3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읽기엔 너무 힘든 책 같았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체험하고 싶다.

김송새봄

나는 지금까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 대충 제주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인 것만 알았지, 누가. 왜. 어떻게 벌인 사건인지도 몰랐고 아는 게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순이삼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단은 너무 슬펐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제주도 땅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순이 삼촌은 4.3 사건의 생존자지만 한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쉰여섯의 나이에 자살을 하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화가 났을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다시는 우리 땅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은 이 책에 담긴 내용 말고도 4.3사건에 관련된 아픈 역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그리고 읽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제주 사투리나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 많았음)

전현주

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사건이 대충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잘 몰랐고, 가끔

은 그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관심한 편이었다.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자료조사 숙제도 하고 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실화라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다. 그리고 순이 삼촌이 너무 불쌍했다. 중간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장대로 몰아 죽였다는 부분에서 화가 나고 슬펐다. 그 때 죽은 사람이 대강 세어서 육백명이나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다. 대대장의 지프차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삼백명이나 사백명 정도는 더 살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작전명령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 다 거짓말 같았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화가 났을 것 같았다. 순이 삼촌네 밭이 송장 거름으로 그 해 고구마 농사가 잘 되었다는 부분이 씁쓸했다.

◇모듬 토론

킹갓잔나비 조

-방연우, 양민혁, 이종은, 이하은, 김송새봄, 전현주

연우: 자 애들아 우리 한번 열띤 토론을 해보자꾸나.

민혁: 좋아!

새봄: 좋아!

종은: 좋아!

하은: 좋아!

현주: 좋아!

새봄: 종은아 너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종은: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읽었던 것 같아.

이 책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에 피해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제주 사투리가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집중력이 흐려지긴 했지만 참고 잘 읽었어.

현주: 나는 종은이와 다르게 사투리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

하은: 아... 그렇구나... 나는 책을 너무 급하게 읽어서 사투리까지 신경쓰면서 읽을 시간이 없었어. 미안해...

연우: 나는 내용이 너무 슬퍼가지고 만약 사투리가 없었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을 것 같아. 내용은 슬프지만 중간중간 재미있는 부분이 많아서 감명 깊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연우: 그럼 양민혁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혁: 일단은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까지 생각해봤어. 마치 인간의 말을 보는 것 같았어.

새봄: 나는 보면서 너무 슬펐어. 아무 이유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대량학살을 했다는게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사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있었으나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조금은 이해하고 대충 어떤 맥락인지 알게 된 것 같아. 희석쌤 사랑해요.

종은: 나도 새봄이 말처럼 제주 4.3 사건이라는 말만 들어봤지 공부를 해보거나 찾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번 이 서평 숙제 덕분에 자세히 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하은: 나도 4.3에 대해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4.3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

는 생각이 들었어. 책은 정말 재밌었지만 사실 읽으면서 너무 어려운 말도 많았던 거 같아.

연우: 나도 물론 제주 4.3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서 좋아.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주 4.3에 관련된 책'을 떠올리면 순이삼촌이 쟈 먼저 떠오르잖아?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어도 나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내가 유명한 책을 읽었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읽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하은: 근데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읽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물론 제주 4.3이 뭔지 공부시키려고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써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그게 맞다면 이 책은 공부하려고 읽는 책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읽어야 되는 책 같아. 너무 어려워...

민혁: 맞아. 나도 저런 느낌이 들긴 했어. 나만 어렵게 읽은 것 같아서 아무 말 안하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현주: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낌 점을 말해보자면 너무 슬퍼. 이 책 내용이 실화잖아? 진짜 실화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내용이었고,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울 것 같아...

연우: 그러게... 나도 진짜 무섭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주 4.3은 정말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역사중 하나인 것 같아.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진짜 쪽팔려서 못살겠어.

종은: 나는 그렇게 까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너희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제주 4.3이 무서운거였구나...

연우: 근데 나 이제 곧 있으면 화장실에 가야해서 시간이 없는데 우리 이 정도만 하고 끝낼까?

민혁: 그래!

현주: 그래!

하은: 그래!

새봄: 그래!

종은: 그래!

보짜조

-이담, 유재훈, 양승혁, 오명민, 안희, 김서준

재훈: 너무 슬펐다. 순이 삼촌이 여자였다는 내용이 반전이였다.

희: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에 놀랐고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며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 것이 좋았다.

담: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실화로 일어났다는게 놀라웠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명민: 책 읽을 때 재미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잔인하고 슬펐다.

승혁: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아서 읽기 힘들었지만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되어 정말 뜻깊었던 독서였던 것 같다.

서준: 제주도 방언으로 책을 썼다는 것이 놀라웠고, 제주 4.3 사태에 대해 배우기 전에 이 소설을 읽어서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희: 북촌리 살인사건이 배경인데 북촌리 학교 운동장에 모아두고 사살을 실시했는데 그 이유가 군인들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서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래. 근데 그 군인들 중에 자기 친인척이 있어서 살려야 된다는 말을 대대장이 듣고 사격중지명령을 내려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거래.

답: 근데 순이삼촌이 죽은 이유가 뭐였지?

서준: 북촌리 학살 사건 때 사람들을 싸죽인 밭이 순이 삼촌네 밭이고 순이 삼촌은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니까 죄책감이랑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자살한거야.

희: 4.3사건 이후로도 연좌제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연좌제 때문에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연좌제가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친척들이 있으면 계속 감시하고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야.

독수리연합 조

-임조은, 최은솔, 박선영, 조상현, 김동현

동현: 순이삼촌이 여자야?

은솔: 너 책 안 읽었냐?

동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선영: 그 마을에서는 성별 안 구별하고 삼촌이라고 불렀대.

선영: 그럼 각자 소감을 얘기해볼까? 나부터 얘기할게. 나는 4.3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 이 사건이 70년 밖에 안 됐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다. 그리고 제주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됐지만 현실감 있어서 좋았어. 또, 잘 읽혀서 좋았어. 하지만 전개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분이 안 가서 좀 힘들었어.

조은: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제주도 하면 휴양지, 바다 이런 것들만 떠올리는 게 안타까웠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4.19 사건처럼 4.3 사건도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주도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었지만 제주도 사투리가 있어서 더 좋았어.

은솔: 책 제목만 듣고 순이라는 아이와 그 아이의 삼촌에 관한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완전 다른 얘기라서 놀랐어. 그리고 나는 사실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런데 순이삼촌을 읽으면서 내가 4.3 사건에 대해 정말 많이 몰랐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순이삼촌이었다면 살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닌 기분일 것 같아. 가족들도 다 죽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 처음에 주인공이 순이삼촌은 1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30년 전에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다 읽고 나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그리고 나도 다른 애들처럼 제주도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어.

동현: 일단 책이 읽기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좋았고 너네들과 마찬가지로 사투리를 쓰는데 뭘말인지 모르겠어서 조금 읽는데 불편했고 제주 4.3사건이 있었는 줄만 알았지 아는 게 없어서 이 책을 읽으며 조금 알아간 것 같아서 좋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좀 무서웠어.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좋은 것 같아

조은: 근데 4.3이 누가 대통령일 때야?

선영: 이승만 정권 때 일일걸?

은솔: 책을 봐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4.3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조은: 나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모이라고 방송을 하고 그 사이에 집을 다 불태워버린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

선영: 나는 문장 중에서 주인공 가족과 손이삼촌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불에 타 죽는 동물들의 울음소리였다는 게 충격적이었어.

동현: 나는 손자가 할아버지 뺨을 때리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

조은: 왜?

동현: 무섭잖아. 손자가 할아버지를 때리는 게.

선영: 그게 어떤 장면이었지?

은솔: 할아버지가 말을 안하니까 군인들이 손자보고 할아버지 뺨을 때리라고 협박 한 거야.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은솔: 나는 죽은 시체들이 다 밭에 무더기로 있었던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 밭에서 내 가족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고 무서운 일이잖아.

조은: 근데 실제로는 바다에 다 버리지 않았을까?

선영: 손이삼촌 책에서도 손이삼촌이 트라우마 때문에 환청을 듣고 그랬잖아. 물론 지금은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은 돌아가셨겠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견뎠을 아이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해.

은솔: 나는 이 책을 추천해주신 무빙쌤들께 굉장히 감사해.

모두: 쌤들 사랑해요♥

◇타 대안학교 분포

지역	학교	가는 친구들
서울	산돌학교	방연우 김서준 오명민
	불이학교	박선영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안희 최은솔
경기	배움터 길학교	이하은 전현주 이담
충청	옥천 꽃피는 학교	유재훈
	산티 학교	임조은
부산	온새미 학교	조상현 이종은 양민혁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	김송새봄 양승혁 김동현

◇타 대안학교 끝나면 안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로!

주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6길 22-3 현대 쉼빌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하차.

2번 출구로 나와 길을 건너 후 버스 환승.

일동 굴다리앞 정류장에서 하차. (5개 정류장 이동)

파리 바게트 바라보고 길을 건너 약 200m 이동.

현대 가정의원에서 좌회전 후 100m 걸으면 놀이터 앞 건물 1층.

2019.05.29 생활규칙 서기

서기 : 큐트 선영♥

생활 규칙

용돈 관리

- 무빙 기간 사용 가능 용돈 : 총 3만원
- 개인소지 가능 여부 : 6월 6일 1만원, 6월 10일 모둠별 자유여행 때 2만원 지급

취침 및 소등 : 11 30분

무단외출 기준

- 숙소 밖을 나갈시 선생님들께 허락을 안 받고 나갔을 때
- 취침 이후 외출 금지

무단외출 벌칙

- 휴대폰 압수
- 압수 시간부터 24시간 + 취침
- 다음날 아침시간 돌려 줌

매점이용

- 전체 이동 시간 중 매점 사용 금지
- 매점 규칙 외출 규칙 적용
- 희석쌤과 동반하에 매점 사용 가능

전자기기 규칙

- 취침(11시 30분) 이후 휴대폰 사용 금지
- 일과활동 중 휴대폰 사용
- 6/6~9 도보 : 비행기 모드로 해놓기
- 6/5, 6/10 : 전면 허용
- 6/11~13 : 기본 비행기 모드. 필요할 때 교사 지침에 따라 사용
- 일과 활동 시간의 기준
- 숙소 기준으로 나갈 때부터 일과시간 시작 - 들어올 때 일과시간 끝
- 휴대폰 사용 규칙 어길시 벌칙 : 24시간 압수 (예-오후 4시에 적발 시 현장 압수 후 그다음 날부터 24시간 보관 적용. 모레 아침에 돌려줌)

먹거리 규칙

- 일반식품 금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 일사병, 열사병, 수상 안전, 각종 상처

하루나누기☺

☺ 6월 5일

☺ 6월 6일

☺ 6월 7일

☺ 6월 8일

☺ 6월 9일

☺ 6월 10일

☺ 6월 11일

☺ 6월 12일

☺ 6월 13일

☺ 6월 14일

롤링페이퍼✌

메모장☒



숲속의 아이들

